

역대급 인사 앞두고 주목 받는 광주지검

배성범 광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1순위 거론

정수봉 차장 검사장 진급 눈앞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25일)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광주지검 간부들의 정보·승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성범(57·23기) 광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요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정수봉(53·25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지검사회에서도 기대가 크다. 배 지검장과 차장검사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88)씨를 광주법정에 세우는 등 '5월 역사 바로잡기'에 크게 기여하고,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홍남기 변호사' 등 5·18 관련 억울한 누명을 쓴 58명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 등 '과거사 바로잡기'에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차기 총장이 오는 25일 취임하면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정보·승진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24~27기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찬식 서울 동부지검장과 차경환 수원지검장 등 2명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윤 신임 총장 지명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인사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검사장 승진대상도 역대급인 12명+α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40여 개 검사장급 자리 중 최대 관

심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반부패·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검찰 내 '신 빅' 가운데 가장 요직으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배 지검장은 윤석열 차기 총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경남 마산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 강력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강력·특수통'이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향인 배 지검장은 공정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총장 인사로 흔들리고 있는 검찰조직을 안정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배 지검장과 함께 영광출신인 문찬석

(58·24기)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거론되고 있으며,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파격적으로 발탁될 수도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인사도 관심이다.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해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2년 연속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검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쓸 수도 있어서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인 정수봉 차장검사는 지난 1년간 배성범 지검장을 보좌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정 출석 등 굵직한 주요 사건을 잡을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한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2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퇴출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왜곡처벌법 통과 시키고 망언의원 퇴출하라”

5·18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정쟁 정치권 비난 기자회견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5월단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23일 기자회견

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 역사왜곡처벌법 통과와 5·18망언 국회의원 퇴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현세만 낭비하고 정쟁의 늪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원 166명은 5월 1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언 국회의원들은 화려하게 복귀해 국회를 활보하고 있

다”며 “여야정당은 오로지 국민을 믿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할 수 없다면 직접 시민과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하는 길 밖에 없다”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5월의 염원과 요구를 관철해 갈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의료폐기물처리업체 17곳

영산강환경유역청 특별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1일까지 광주·전남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광주·전남에 등록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과 운반업체 15곳, 소각업체 2곳 등 모두 17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재유통 및 승인받은 장소 외 보관 ▲처분능력을 초과한 수탁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유지 ▲보관창고 등의 적정 관리(의료폐기물의 보관량·보관기간 초과·정기 소독여부) 여부 등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켜야 할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살핀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 이상현 교수 연구팀

인체 무해 新형광물질 개발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TV나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면서도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광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남대 이상현(화학공학부)교수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지 않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소재 개발했다.

공동연구팀은 다양한 시도 끝에 납 대신 희토류계 원소인 이터븀(Ytterbium, 원자번호 70번)를 사용함으로써 고품질, 고균일도를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소재 합성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달뜨기 23:56
해질 19:42 달뜨기 11:58

잠 못 이루는 밤

폭염과 열대야 이어지겠다.

광주	구름 많음	25/33	보성	구름 많음	25/29
목포	구름 많음	25/30	순천	구름 많음	25/33
여수	구름 많음	25/28	영광	구름 많음	25/31
나주	구름 많음	24/33	진도	구름 많음	24/29
완도	구름 많음	24/30	전주	흐림	25/32
구례	구름 많음	24/33	군산	흐림	25/30
강진	구름 많음	24/30	남원	흐림	24/31
해남	구름 많음	24/30	혁신도	구름 많음	23/26
장성	구름 많음	24/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좋음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56	06:32
여수	--:--	18:59
	07:26	01:03
19:26	13:39	

◇ 주간 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	☁	☁	☁	☁	☁	☁
25/31	24/31	24/31	24/33	25/33	25/34	25/34

광주·전남 25일 오전까지 열대야·폭염

광주와 전남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5개 시·군에서 지난 22일 밤에 열대야가 나타났고, 폭염과 열대야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리잡아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25일 오전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광주에 22일 밤부터 23일 오전에 나타난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1일, 평년보다 7일 늦게 찾아왔다.

광주와 화순·나주·순천·광양·구례·곡성·담양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24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5도·전남 23~2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3도·전남 28~33도로 분포되겠다.

25일에는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5도·전남 23~2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전남 28~32도로 나타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양림동에 200면 규모 주차타워

관광객 증가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200면 규모 주차타워가 신축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양림동 공영 주차장 주차 타워는 양림 파출소와 땡골동굴 인근에 조성돼 있는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새롭게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남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건설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 공영 주차장의 수용 능력은 대형 버스 주차공간 4면을 비롯해 총 108면이며, 이곳에 주차 타워가 신축되면 2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